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중국 싱글데이, 매출 신기록 또 경신



물류정책·산업동향

1. 아마존사, 미 네슈빌(Nashville)에 신규 물류센터 건립 예정
2. 올해도 유럽 2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증가세 지속될 듯
3. 미국 오클랜드(Oakland)항, 쿨포트(Cool Port) 개장
4. 인도-러시아-이란, 국제남북회랑 조기 운영 위해 회담 예정

명사 스피치

“해운은 변동성이 심한 산업이지만 선가나 용선료 변동폭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처럼 단기간에 폭발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다수 선종에서 인수합병, 선대 매각 등이 이뤄지면서 거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이 아닌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 활동하는 선사가 해운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홍범 버셀즈밸류 한국지사장
(2018. 11. 8. / 코리아슈핑가제트 인터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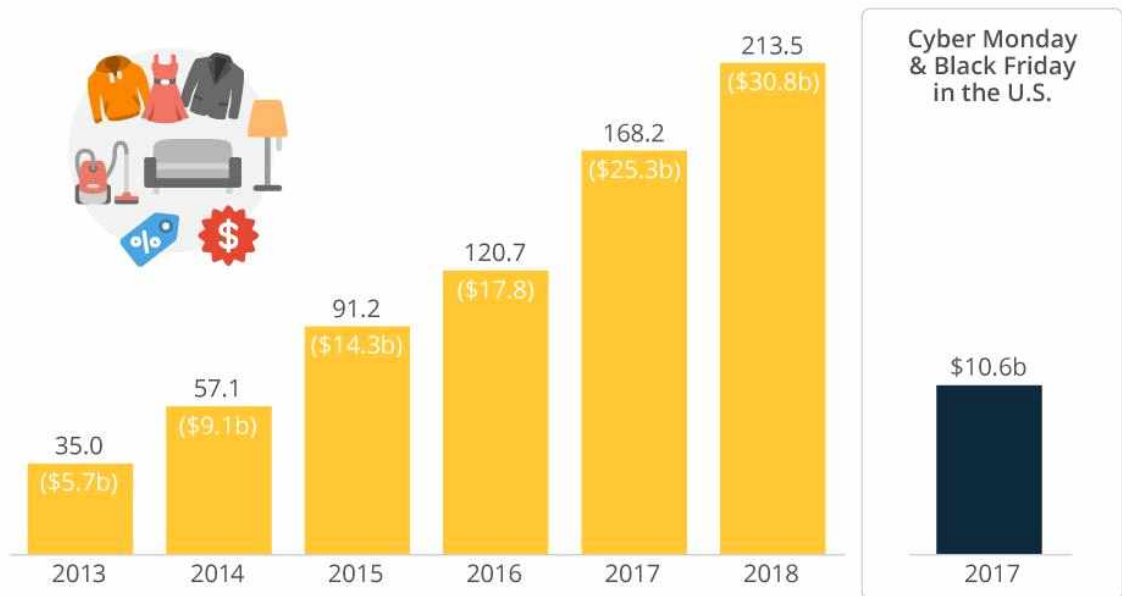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중국 싱글데이, 매출 신기록 또 경신

중국 싱글데이 온라인 매출액(2013-2018)

Singles' Day Sets Another Sales Record

GMV for Alibaba on Singles' Day compared to Black Friday & Cyber Monday* (in RMB)



자료 : Alibaba via Techcrunch

-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자리 잡은 싱글데이의 2018년도 매출이 또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남
- 독신으로서의 자부심을 표할 수 있는 축제의 날이 점점 더 온라인 쇼핑의 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올해 알리바바가 싱글데이를 통해 기록한 총 매출액은 308억 달러로 지난해 매출액 250억 달러를 15시간 49분만에 달성함
- 2017년 미국이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축제를 통해 기록한 매출액은 총 106억 달러로 중국의 싱글데이 매출액(253억 달러) 대비 절반도 안되는 수준임

참고자료 : <http://unctadstat.unctad.org>, 2018.11.5.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아마존사, 미 네슈빌(Nashville)에 신규 물류센터 건립 예정

-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사가 미 테네시(Tennessee)주 네슈빌에 'Operations Center of Excellence'를 건립할 예정임
 - Operations Center of Excellence는 풀필먼트(Fulfillment) 및 고객서비스기능 뿐만 아니라 운송 및 공급체인 등의 기술관리 및 운영이 수행되는 곳임
 - 센터는 도로교통망이 잘 갖춰진 시내중심부에 위치할 예정이며 시설 규모는 약 100만ft² 임
- 이를 통해 네슈빌은 아마존사의 미 동부지역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센터의 설립을 위해 아마존사는 약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시간당 평균 급여는 약 80달러 수준의 고임금 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발표함
 - 테네시주의 주지사 Bill Haslam씨에 따르면, 이는 테네시주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나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본격적인 고용은 2019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함
 - 이러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의 결과로 향후 10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 이러한 Operations Center of Excellence의 구축은 핵심능력으로 공급사슬 운영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아마존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아마존사는 네슈빌 Operations Center of Excellence에 Dollar General, Nissan North America 및 Tractor Supply 등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임
 - 이러한 기업 풀(pool) 구축을 통해 아마존사의 공급사슬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참고자료 : www.supplychaindive.com, "Amazon to build supply chain hub in Nashville", 2018.11.13.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

올해도 유럽 2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증가세 지속될 듯

- 최근 유럽-아시아 지역 간 더딘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유럽 최대 컨테이너화물 처리 항만인 로테르담항과 앤트워프항의 물동량 처리실적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유럽 최대 컨테이너화물 처리항만인 로테르담항과 앤트워프항의 아시아지역 항만 컨테이너물동량은 2017년 대비 둔화 또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로테르담항의 2018년 1월~8월 아시아지역 항만과의 수입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은 2017년 동 기간 대비 최소 2.4%에서 최대 3.7%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앤트워프항의 수입 컨테이너화물은 중국 항만과는 0%, 타 아시아지역 항만과는 약 2.2% 수준의 낮은 물동량 증가세를 기록했음
 - 그러나 아메리카지역 항만과의 컨테이너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로테르담항과 앤트워프항의 전체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은 작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로테르담항은 2018년 1월~9월 약 1천 78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물동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임
 - 앤트워프항 역시 2018년 1월~9월 작년 동기 대비 약 7% 이상 증가한 약 8백 33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컨테이너물동량을 기록했음
- 향후 유럽-아메리카(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지역 항만과의 화물량 증가세가 지속되어 유럽 상위 2대 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처리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3분기까지 로테르담항의 북아메리카지역 항만과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하였으며, 남아메리카지역 항만과의 물동량은 약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음
 - 같은 기간 앤트워프항의 북아메리카지역 항만과의 컨테이너처리 실적도 2017년 대비 약 8.2% 이상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음

로테르담항의 컨테이너화물 처리 전경



출처 : <https://www.joc.com/port-news/european-ports/port-antwerp/>

■ 참고자료 : <https://www.joc.com/port-news/> (2018.11.08. 검색)

미국 오클랜드(Oakland)항, 쿨포트(Cool Port) 개장

신규 개장한 오클랜드항의 냉동창고



자료 : www.portoakland.com, www.americanshipper.com

- 냉동보관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쿨포트(Cool Port)가 오클랜드항에 개장함
 -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니지 쿨포트 오클랜드(Lineage Cool Port Oakland)'는 미국 내 두 번째 규모의 냉장창고 및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인 '리니지 로지스틱스(Lineage Logistics)'와 지역 내에서 신선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3PL 업체인 '드레이스바흐(Dreisbach)'의 합작회사임
 - 쿨포트의 규모는 25에이커(약 101,171㎡)이며, 냉동컨테이너와 철도·트럭 간의 환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28만 평방피트(약 26,013㎡)의 창고는 90개의 트럭 도크 및 철도 분기 라인을 갖추 예정이며, 연간 1백만 톤의 신선물류 처리가 가능함
 - 쿨포트는 2만 개의 팔레트를 수용할 수 있으며, 10만 평방피트(약 9,290㎡) 규모의 하이큐브(high-cube) 다중온도(multi-temperature) 환경을 갖춘 완전(fully) 콜드체인 시설임
 - 또한 쿨포트는 트럭의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며 경량 새시와 트랙터를 사용하고 화물취급 장비는 전부 전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함
- 쿨포트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임
 - 쿨포트 측은 농무부(USDA)의 현장검사 및 라벨링 기능은 물론 철도 수송 및 트럭 크로스도크(cross-dock), 냉동 및 냉장보관, 수출입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쿨포트는 소고기,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출업체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냉동제품은 철도로 수송되나 신선한 고기는 운송시간이 빠른 트럭으로 주로 수송되고 있어 쿨포트 이용 업체들의 절반 이상은 트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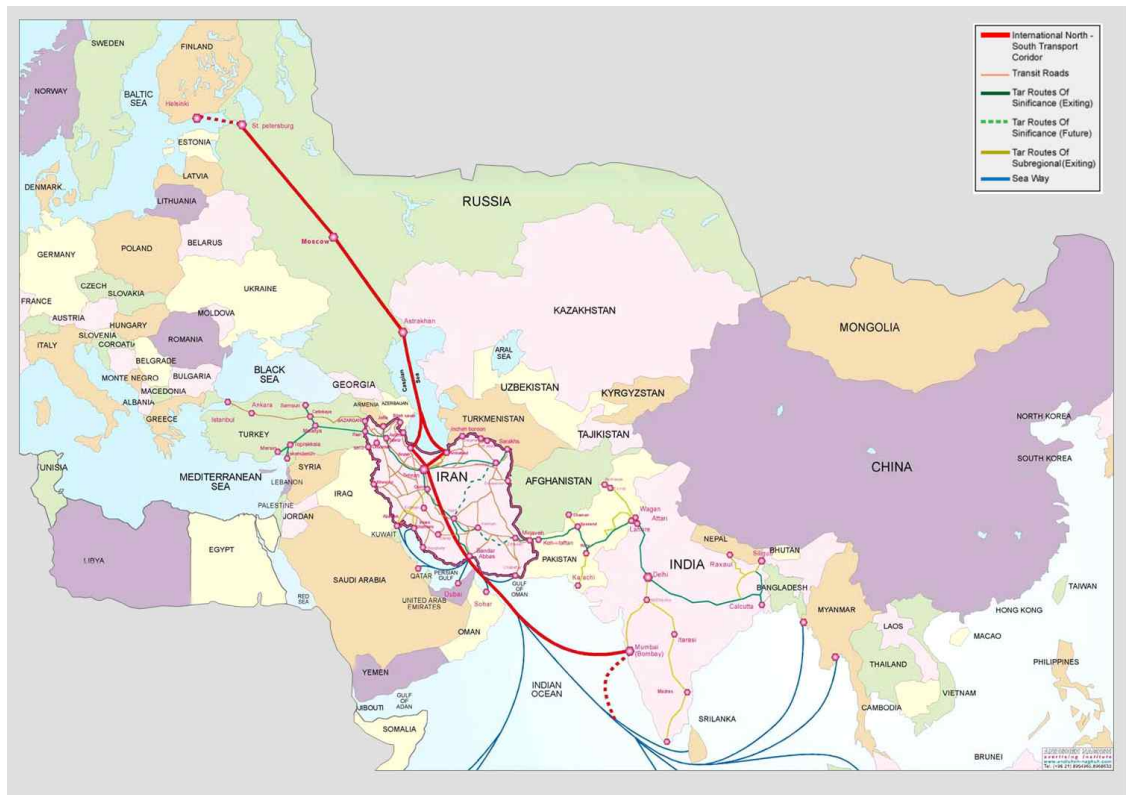
■ 참고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8.11.13. / www.portoakland.com, 2018.11.13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인도-러시아-이란, 국제남북회랑 조기 운영 위해 회담 예정

- 국제남북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INSTC)의 조기 운영을 위해 인도, 러시아, 이란이 2018년 11월 23일 회담을 가질 예정임
 - 3국은 중앙아시아와의 교호협력을 증진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INSTC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4년 8월과 2017년 4월에 두차례 시범운행을 했음
 - 올해 4월 러시아 철도공사(Russian Railways JSC)는 INSTC 활성화를 위해 이란, 인도 및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물류기업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총 연장이 7,200km인 INSTC는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을 통해 이란과 러시아 및 북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복합운송경로임
 - 수에즈 운하 경유에 비해 운송 시간과 비용을 30%에서 40%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최단 루트로 기대되고 있음
 - 초기 단계에는 연간 500만 톤의 화물을 INSTC를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며, 향후 연간 수송량은 2~3천만 톤 수준으로 예상됨



자료: <http://instcorridor.com/maps/>

- 인도는 이란을 경유하는 INSTC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접근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루트로 판단하고 있음
 - 인도는 현재 중국, 유럽 또는 이란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이중 중국과 유럽을 이용하는 루트는 거리가 길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높음
 - 이에 인도는 이란 남동부의 차바하르(Chabahar)항을 활용해 INSTC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음
 - INSTC를 이용하면 인도 뭄바이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수에즈 운하 경유보다 20일 정도 운송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http://instcorridor.com/maps/>

■ 참고자료 : <https://www.tasnimnews.com/en/> 2018.11.1. <https://financialtribune.com/> 2018.10.30.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